

## 조경의 국제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양 병 이

이번에 제29차 세계조경가협회(IFLA)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는 평을 참가했던 외국조경가들과 그리고 조경이 아닌 다른 분야의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것을 듣고서야 총회준비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총회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조경분야의 조경인들이 힘을 합쳐 노력을 했던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번우교수의 W이론대로 단합된 힘은 신바람을 일으켜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세계조경가협회총회가 끝난 지금 잔칫집에서 잔치가 끝난 마당 한귀퉁이에서 있는 부엌일을 거들었던 동네 아주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허탈함과 한가로움을 가지고 이번총회가 우리나라 조경분야에 무엇을 가지고 올 예정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어떤 분은 이제 잔치는 끝났고 잔치란 원래 1회성인 것인데 기대할 게 무엇이었는가 하고 망각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가며 치룬 잔치인데 본전은 뽑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미련을 가지고 무엇인가 보답이 올 것을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총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은 직접 실감을 했지만 400여명의 외국조경가들이 50여개국에서 참가하여 우리나라 조경의 모습을 살살이 훑어 보았고 우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돌았다는 것은 우리 조경인들은 이제는 세계조경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조경가협회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조경분야는 국제화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아직 실감을 못한다면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 국제화의 의미

다른 분야는 이미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니 우루과이라운드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으니 하고 오래전부터 국제화에 대비해 왔으며 마음가짐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조경분야만은 국제화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 생각들을 해 온게 사실이다. 조경설계분야는 이미 시장개방대상업종이 되어 조만간 외국설계업체가 침투해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조경시공분야도 부득이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는 분야종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조경인들이 아무리 대원군처럼 문을 닫고 있어도 결국에는 국제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조경의 국제화란 조경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경의 국제화란 우리의 시야가 국내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경의 학문적 수준도 국내에서만 비교가 되고 외국의 학문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을 보다 시야를 넓혀 외국과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한국인들의 논문들이 외국의 우수한 학술잡지에 실리게 되고 조경분야의 학문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국내의 조경가들 특히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조경설계나 시공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업체들이 국내의 업체와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내의 설계나 시공업체들이 외국시장에 진출하여 명실공히 외국업체와 경쟁을 하는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국제화에 대비한 조경인의 자세

조경인들이 국제화의 시대에 대비해 갖추어야 할 자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적인 동향을 빠르게 입수하여 다양한 국제적인 변화와 시대적 감각에 민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우리 조경분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외국의 조경분야학술잡지가 그다지 보급이 되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대학의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문의 국제적인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더 나아가서 시대적 감각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관심사의 변화가 오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긴 안목에서의 비전을 갖지 못했을 때 분야의 발전이 느려지고 타분야나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조경인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자세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한국형설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설계나 기술을 그대로 모방만해서는 항상 선진외국의 뒤를 쫓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요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W이론이 한국형의 기술을 주장하는 이론인 데 조경분야에서도 W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설계 과정에서 외국의 조경설계책자나 도면집에 실려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보고서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외국여행에서 보았던 설계가 마음에 들어 그것을 모방하는 식의 설계를 해서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발전해 온 한국의 전통조경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에 와서 전통성을 계승하고 이를 승화시킨 한국성을 나타내는 조경설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은 빠르고 편해서 외국의 조경기술을 직수입해 쓴다든지 외국조경소재들을 직수입해 이용을 할 때 항상 외국에 의존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 3. 국제화시대에 예상되는 새로운 변화

조경분야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아야 할 새로운 세계적인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특히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는 국내의 조경인들이 앞으로 주시하여 대처해 나아가야 할 점이 새롭게 대두되는 세계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전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대두된 지구환경 문제이다. 이번의 세계조경가협회(IFLA)총회에서도 개회식이나 폐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조경분야의 세계적 원로조경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조경분야에서의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조경이 환경문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라고 역설하고 환경문제해결의 가능성들을 제시한 바 있다. 조경의 목표가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환경이 오염으로 황폐해 가고 인간의 생활환경도 저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가들은 조경의 원리를 이용해 보다 근본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책들을 마련하고 조경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흔히 환경문제는 환경공학이나 환경오염관련분야의 영역이라고 간주하고 조경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나라 조경인들이 전혀 무관심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조경의 영역을 축소시향적으로 생각한 때문이고 전세계적 흐름을 간파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세계적인 국제경제질서나 무역 등이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산업분야나 경제계에서도 이에 대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환경의 창조와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경인들이 이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다.

둘째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학자들이 진단해 왔으며 그 물결이 우리의 주변에서 넘실대고 있다. 조경분야에서도 정보화의 추세에 맞추어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계획기법들이 이미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의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전망한 바에 의하면 조만간 모든 정보가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원화되고 은행은 올라

인망과 같이 어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컴퓨터의 기종이나 프로그램이 다름에 따라 호환성이 없었던 것을 해소시키고 모든 그래픽과 문자가 호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비디오나 T.V.와 컴퓨터가 접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같은 컴퓨터의 발전은 조경에서 이용되는 컴퓨터기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이제까지 컴퓨터가 가졌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경계획이나 설계에서 컴퓨터의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될 것이고 현재 이용되는 CAD 기법도 훨씬 발전되고 손쉬워져 설계의 주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예술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이 밀려와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건축분야에서도 포스트모던경향을 갖는 건축물들이 세워짐으로서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경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불어오기 시작해 서서히 모더니즘이 아닌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유행으로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중의 하나인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조경설계분야에서 모더니즘의 경향을 띄지 않는 새로운 경향들 아방가르드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불려지는 경향들이 외국의 일부 조경가를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모더니즘이 갖고 있었던 특색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일지 새로운 경향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범예술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에 힘입어 조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흔히 새로운 경향이 대두될 때 내면적인 설계 철학이나 설계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외관만을 모방하는것으로 새로운 접근을 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물중에는 외관을 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건물을 흉내내어 지어진 건물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경설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보다 철저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조경분야의 국제경쟁력강화방안

조경의 국제화는 국내의 조경시장이 외국에 개방되고 우리가 외국의 조경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경분야가 존립하고 더 나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즉 학문분야, 설계분야, 시공분야, 소재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조경인 모두가 국제적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가 선진외국 즉 일본이나 미국 등과 경쟁이 되겠나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의 학계나 업계를 높이 평가하려는 마음을 갖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물론 지금 당장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여러면에서 선진외국에 비해 수준이 훨씬 뒤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외국의 수준을 따라잡고 오히려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조경분야의 설계나 시공의 기술을 외국의 모방이 아닌 우리의 독특한 자체기술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의 독특한 기술이 개발됨으로서 외국에의 의존을 탈피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경쟁에서도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경분야의 모든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며 산학협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산업분야는 이미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산학협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지나간 경험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산업은 발전하고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산업은 퇴보를 면하지 못함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조경분야가 인접분야인 토목이나 건축분야와의 경쟁에서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도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뒤지지 않는 연구개발투자를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조경업체가 연구개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산학협동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자주 느끼고 있다. 외국과의 경쟁과 인

접분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는 신소재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경이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조경설계를 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시공을 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경소재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좋은 조경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현재도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설계를 했으나 시공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경소재가 없어 설계를 소재에 맞게 뜯어 고침으로서 아이디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한다. 또한 전국의 조경이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를 일반인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조경소재산업이 취약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조경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조경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소재산업이 성장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조경수생산업체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조경수종을 토대로 하여 설계나 시공을 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수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대량생산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시설물의 생산도 전문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전문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조경시설물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새로운 조경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조경설계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자체설계를 하여 조경시설물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지만 제작업체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기피하여 결국은 타분야 업체에 제작을 맡기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경시설물생산업체가 육성되고 이들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여 항상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된다면 대부분의 조경설계사무실들이 이들 제품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시켜 저절로 제품소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는말

조경의 국제화란 언뜻 듣기에는 이제는 조경분야가 뿌리깊게 정착되고 발전되어 국제무대에 진출되는 형편에 까지 왔구나 하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인줄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조경분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발견하고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동안 우물안에서 자라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이제부터는 넓고 파도가 치는 강으로 밀려나온 신세가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분야가 자라면서 겪어야 하는 운명적인 발전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분야의 성장이 지속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조경분야 성장은 온실속에서 자라온 것과 마찬가지로의 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조경분야의 체질이 튼튼해져 세계적인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인들이 각기 맡은 직무에서 세계속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각오로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조경분야의 미래가 순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해마다 새로운 조경인들이 수백명씩 배출되어 식구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조경분야의 무대를 국내에서만 찾고 있기보다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활로인지도 모른다. 어느 기업인의 저서 제목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이다.